

2022 동중부 쉬임집회 (2022 년 3 월 25-27 일)

메시지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회복

성경말씀: 행 26:16-19; 딤편 1:3-6; 6:3-4; 고후 11:2-3; 딤후 4:22

- I. “회복”이란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한 후에 정상 상태로 복원 또는 되돌림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교회의 역사에서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하락해 왔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창 2:7-25; 계 19:7-9; 21:2; 18-21; 22:1-2, 17a.
 - B. 회복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마 19:8.
- II. 교회의 내용과 아름다움과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표준에 의해서 그분의 회복의 현재 진전함에 맞게 통제되어야 한다.
 - A. 주님의 회복은 성육신, 포함, 강화의 완전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중심, 실재,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회복이다—골 1:17b, 18 하; 시 80:1, 15, 17-19; 요 1:14; 고전 15:45b; 계 2:4-5, 7, 17; 3:7-8, 12-13, 17-22; 4:5; 5:6; 요 6:57; 14:21, 23; 21:15-17.
 - B.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회복이다—요 17:11, 21, 21-23; 엡 4:3-4a; 계 1:11.
 - C.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의 회복이다—엡 4:15-16; 롬 15:16; 벧전 2:5, 9; 고전 14:1, 4b, 12, 26, 31, 39.
- II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 밝히 드러났지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 회복될 필요가 있다.
 - A. “회복”과 “경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한 가지를 나타낸다. 하나님께는 경륜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회복에 속한 문제이다—딤편. 1:4; 엡. 1:10; 3:9.
 - B. 하나님의 백성 중 다수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임하신다는 강력하고 확고한 원칙이 있다. 그분의 회복은 항상 소수와 함께 하고, 다수가 아닌 이기는 이들의 남은 이들과 함께 한다—왕하 22:8; 스 1:3-11; 느 2:11, 17; 계 3:21; 18:4.
- IV.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하늘에 속한 이상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일과 활동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기 위해서, 이 이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잠 29:18 상; 행 26:16-19; 요일 1:7; 3 요 3-4: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다—딤편 1:3-6; 6:3-4; 고후 11:2-3; 딤편 1:9; 골 2:19.
 - B.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게 하여 그분 자신이 사람과 하나 되고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표현이 확장되고 확대됨으로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이 사람의 미덕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요

1:12-13; 3:15-16; 뱀후 1:4; 롬 8:16; 고전 6:17; 롬 12:1-2; 고후 4:16-18; 빌 3:21; 요일 3:2.

V.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표적,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전략적인 중심 요점은 우리의 영 안에, 곧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고후 3:17; 딤후 4:22; 롬 8:16; 고전 6:17:

- A. 신성한 경륜의 표적으로부터 빛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신성한 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딤후 1:6; 말 2:15-16; 롬 1:9; 8:4, 6; 갈 5:25; 발 3:3; 고후 2:13.
- B.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청사진”에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이다—창 2:7; 잠 20:27.
- C.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으시다. 우리의 혼 안에 산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속 4:6; 12:1; 고전 15:45b; 6:17; 요일 2:18-19.

V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결되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엡 1:22-23; 계 21:2-3, 9-10.

- A. 지방 교회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표현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도 있을 수 없다—계 1:10-13; 2:7.
- B.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다. 이것 외에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노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엡 4:1-6, 11-16.
- C.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로 이끌어야 한다—고전 12:24; 롬 16:1-20.
- D. 이 시대의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의 예루살렘(교회생활)에서 오늘날의 시온인 이기는 이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계 3:21-22; 14:1-5; 샅 5:15-16, 31.

VI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유일하고 건강한 가르침인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누림에서 떠나게 한다—딤후 1:3-4; 행 2:42; 고후 11:2-3.

VIII. 오늘날 우리는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이상(vision*),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행 1:14; 고전 1:9-10; 렘 32:39. *비교: 이상 (vision) 과 분열 (division)

IX.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며, 이 이상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행 26:18-19; 잠 29:18b.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성경말씀: 엡 1:10; 3:9; 딤후 1:4; 갈 6:18; 고전 15:10; 뱀후 3:18a

- I. 하나님의 경륜은 삼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을 얻어, 그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 그들이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점유되며, 그분과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되는 것이다—엡 1:3-23: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경 전체의 중심 노선이다—10:3:9절.
 - B. 성경의 해석은 이 중심 노선의 빛 비춤 아래 그 중심 노선에 의해 엄격히 통제 받아야 한다—눅 24:27, 32, 44.
 - C.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사역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딤후 1:4.
 - D.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생명이다—고후 5:14-15.
- II.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요 1:14, 16-17; 엡 2:7; 계 22:21:
 - A. 은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가장 위대한 진리이고 가장 높은 계시이다—요 1:14, 16-17; 히 10:29; 고전 15:10; 빌 4:23; 계 22:21.
 - B. 신약 경륜 안에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경륜 전체 대한 분명한 관점이 필요하다.
- III. 신약 경륜에 따르면, 은혜는 사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요 1:16-17; 고후 12:9:
 - A. 은혜는 교리가 아닌 우리 체험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 포함되는 것은 생명, 힘, 위로, 휴식, 빛, 의, 거룩함, 능력 및 다른 신성한 속성들이다.
 - B. 대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해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이고,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체험하는 삼일 하나님이다—13:14.
 - C. 신약 경륜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어 믿는이들 안에서 또 가운데서 움직이고 사는 것에 관한 역사이다—요 1:14, 16-17; 계 22:21.
- IV. 은혜는—아버지, 아들, 그 영—세 방면의 체현 안에 삼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고후 13:14; 민 6:22-27; 시 36:8-9:
 - A. 은혜는 근원이신 아버지께 의해, 요소이신 아들에 의해, 적용이신 그 영에 의해 믿는이들 안으로 분배되시기 위해 성육신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다—고후 13:14.
 - B.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사람이 되셨고, 인생을 통과하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그분은 생명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전 15:45b; 6:17.
 - C. 은혜는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요 1:14, 16-17; 뱀전 5:10; 고후 13:14; 히 10:29; 고전 15:10, 45b; 계 2:21.

V.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갈 6:18:

- A.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18절:
1.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초점이다—요 3:6; 롬 8:10; 15:29; 엡 1:3.
 2. 우리는 주님의 은혜,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이 우리의 영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빌 1:19; 고후 4:22.
- B.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훈련하여 누린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실재화 되신)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다 —요 1:14; 고전 15:45b; 딤후 4:22; 몬 25:
1. 은혜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궁극적으로, 그 영이 은혜이다—히 10:29.
 2. 이 은혜는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고, 이제 우리 영 안에 거한다—빌 4:23.
- C.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후 13:14; 몬 25:
1.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동안 계속될 문제이다— 요 1:16; 계 22:21.
 2.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을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우리는 은혜의 영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매일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발생한다—갈 3:2-5; 요 3:34.

VI.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전 15:10:

- A.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세 차례 언급된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가져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생명주는 영(45절)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 B.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더 이상 내가…아니라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 자신께서 사도를 통해 일하심이다.

VII.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십시오”—뱀후 3:18a:

- A. 은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서 생명과 생명 공급되심이다. 생명의 공급의 내적 근원으로 자라는 것이 은혜로 자라는 것이다—뱀전 5:10.
- B. 은혜는 성육신, 죽음, 부활 및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와 하나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다—빌 4:23.

신약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봄

성경말씀: 엡 3:6-11; 고후 5:20; 마 28:18-19; 고전 12:13; 잠 4:18; 시 119:147-148; 롬 12:1

I.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실행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 A.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을 보았을지라도,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나는 대만에서 사 년을 들여…성경에 따른 실행 방식을 연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분배하심을 실행하기 위한 길을 찾아 내기 위한 시도였다.”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하심, 11 쪽).
- B. 우리의 갈망은 신약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 C. 우리가 밖에 나갈 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사람들을 방문하러 나가고 있다는 개념과 깊은 느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II.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과 깊은 인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완성되신 것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번식되시는 것과 관련된다—엡 3:6-11:

- A. 그리스도께서 완성되신 것은 신성한 경륜 안에서 첫 번째 주요 항목이다.
 - 1.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신성하게 장비 되시는 것, 즉 성육신,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완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으셨다.
 - 2. 이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께 연결하셨고, 이 연결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대사들로서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마 28:18-19; 고후 5:20.
- B.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 다음 주된 항목은 공기같은 그리스도의 번식이다.
 - 1. 공기같은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생명의 영으로서 부활의 신성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는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신다—요 3:3, 5-6.
 - 2. 공기같은 그리스도는 또한 경륜적인 능력의 영으로서 거듭난 믿는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를 주신다—고전 12:13.
 - 3.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를 보는 그러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럴때 사람들은 본질적인, 공기 같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삼일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 4.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을 공기같은 그리스도, 곧 완성되신 그리스도의 증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 C. 그리스도께서 완성되신 것과 공기같은 그리스도의 번식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엡 3:6-11.

III.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부흥된 생명에 의해 적용된다.

- A. 성경적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1.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함—마 28:19, 막 16:15.
 2. 새로운 사람들의 가정에 가정 집회를 세워 그들을 보양하고 보살핌으로 그들을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함—요 21:15, 벧전 2:2.
 3. 새로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그룹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그룹 집회를 가짐—히 10:24-25, 엡 4:12-13.
 4. 신언함,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교회 집회들 안에서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말해 냄—고전 14:1, 3-5, 12, 23-24, 31, 39a.
- B.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부흥은 아침에 발생한다.
1.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부흥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2. 우리가 가정 집회에 참석하든, 소그룹 집회에 참석하든, 지역 집회에 참석하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반드시 부흥된 이들이 되어야 한다.
 3. 아침 부흥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근거를 둔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해의 움직임을 따르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해가 떠오를 때, 우리도 해와 함께 떠올라야 한다. 우리는 한낮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떠 올라야 한다—애 3:22-23, 잠 4:18.
 - a. 영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 즉 주님께 말하는 것이다. 주님을 부르는 것에 더하여 주님께 말하는 것은 사람이 심호흡하는 것과 같다—시 119:147a, 애 3:55-56, 롬 10:12b-13.
 - b. 영의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완전히 연합될 것이다—시 119:147b, 엡 6:17-18.
 - c.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즉 우리 자신에 대한 내적인 유죄판결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들과 흠들, 패배들, 그릇 행한 것들, 실수들, 심지어 죄로 가득한 것을 주님께 철저히 자백함으로써 이루어진다—시 32:5, 51:1-9, 요일 1:9.
 - d. 아침 부흥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찬송함,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함, 어떤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
- C. 아침 부흥 후에, 우리는 반드시 온종일 우리 자신을 영 안에 지키기를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롬 8:4, 갈 5:16.

메시지 4

하나님의 가정인 믿는이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훈련함

성경말씀: 롬 15:16, 요 21:15, 살전 2:7, 엡 4:12, 고전 14:3-4, 12, 26

- I.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과 같다. 첫째로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안에 아이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전 4:14-15, 문 10.
 - A. 낳는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수고하는 제사장으로 훈련할 때 발생한다—롬 15:16.
 - B. 모든 신약의 믿는이들은 단체적인 제사장들이다—계 19:5 후-6, 5:9-10, 벘전 2:5, 9.
 - C.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과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로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을 드러야 한다.
 - D. 제사장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부담을 받고, 활력케 되어, 그리스도가 다른이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람을 방문하여야 한다.
 - E.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우리는 사랑, 관심, 동정으로 충만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가지게 된다.
 - F. 이런 연합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우리의 주 하나님의 갈망과 함께 서게 되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지게 된다.
- II. 두번째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아이를 방문하고 먹여야 한다. 새로운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먹거나 마실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양육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요 21:15, 살전 2:7.
 - A. 몇 명을 우리의 목양하는 돌봄 아래 두는 것은 언제나 좋다.
 - B. 네 가지의 다리로 이런 목양의 시간을 지탱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연합된 영, 찬송, 기도이다.
 - C. 이런 방식은 우리로 진리의 지식으로 합당하게 무장될 것을 요구하고, 주님의 어린양의 필요를 채우는데 있어서 살아있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생명의 체험이 요구된다.
 - D. 우리의 목적은 새로운 이들을 양육하고 소중하게 품어서 생명 안에 남아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요 15:16, 21:15.
 - E.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들”을 다른 환경속에서 세밀하고, 부드럽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기 위한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
 - F.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한다.
- III. 세번째로 우리는 단지 아이들을 먹일 뿐 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온전케 해야 한다. 먹인 후에 이 새로운 믿는이들은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하다—엡. 4:12.

- A. 그룹 집회는 교통, 중보기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 간의 돌봄과 목양을 가진다.
- B. 그룹 집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결에 관해 상호 가르치고 배울때, 서로간의 온전케 함이 이루어진다—히 10:24-25, 행 20:27, 31.
- C. 이런 그룹 모임에서의 온전케 함은 성도들이 신약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시키고 온전케 할 것이다—엡 4:12.

IV. 네번째로 우리가 온전케 된 후에 모든 성도는 신언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신약에 따르면 신언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건축한다—고전 14:3-4, 12, 26.

- A. 신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 B. 신언은 믿는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고전 14:3.
- C. 신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에게 계시한다.
- D. 우리는 신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전 14:1, 12, 24-25, 31, 39a.
- E. 우리는 풍성한 말씀으로부터 내용이 있는, 개인적인 생명의 체험이 있는, 신성한 빛 비추심과 영감 아래, 건강한 언변과 영의 훈련이 있는 신언을 배울 필요가 있다.
- F. 신언은 만물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엡 1:22-23.